

광주·전남 大해부

전남 편 <제1부> 농업·산업

전기자동차 특화 165만㎡ 대마산단 조성 ‘가속’

4 신산업 유치만이 살 길, 영광군의 도전

농·어업이 경제적인 기반인 22개 시군 모두 젊은 인구 유출과 초고령화, 낮은 경제자립도와 발전 지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산업단지 조성이었다. 산업체를 유치하면서 젊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부 증대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각 시군에 우후죽순 산업단지가 생겨났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특성이나 환경에 대한 고려 없는 무분별하게 업체 유치, 비슷비슷한 업체 구성 등으로 인해 산업체와 기존 주민과의 부조화와 환경 파괴, 분양 저조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이 최근 지역에서는 최초로 대마면 일대에 ‘전기자동차’를 핵으로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영광군이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선 지난해는 공교롭게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크게 위축된 시점이었다. 산업단지 개발에는 수 천억원의 예산이 드는 만큼 초기 투자에 나서줄 대기업은 물론, 토지보상을 책임질 금융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였다. 비슷한 시기 추진됐던 나주시 미래산업단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즉 PF(Project Financing)에 실패하면서 구역까지 지정해 둔 상태에서 전면 보류됐으며, 당시 기존 전남도 내 산업단지의 분양 실적도 저조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불리한 여건을 고한 기업과 아이디어를 통해 정면돌파하기로 했다. ‘굴비’와 ‘원자력’이라는 낙넫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미래성장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지난해 말 현재 영광군의 인구는 5만7037명으로, 지난 1970년의 14만7372명에 비하면 1/3 수준으로 전락하는 등 지역발전동력의 근간이 되는 인구의 감소는 치명적이었다. 이 같은 추세로 가면 오는 2015년 5만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추정이며, 무엇보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산업의 유치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됐다.

우선 지역 출신이 대표로 있는 (주)탐 건설 설득에 들어갔으며, 일반적인 단지가 아닌 하나의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호남권 거점도시인 광주와의 가까운 거리, 전기자동차라는 아이디어, 군민들의 지지 등이 결국 민간투자를 이끌어냈다.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구역 변경이나 민원 등으로 인해 계획이 수정되는 일을 사전에 차단했기 때문이다. 영광군 각 면 단위까지 투자유치위원을 임명하면서 130여명의 든든한 지원군도 발로 뛰며 민원해결에 나섰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 영광군, 탐 건설, KCC 건설 등이 대마산단 조성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며, 사업비 2032억원을 투자해 165

일터 제조업체 등이 들어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광군은 2326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19억원의 임금유발효과, 117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업체들의 대마산업단지 노크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부지 보상 등에 쓰일 600억원의 자금조달이 성공적으로 끝나자마자 같은 달 16일 박준영 도지사와 정기호 영광군수, 김중수 CT&T 사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CT&T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착공식과 전국 최초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출범식을 가졌다.

전남도가 앞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실증단지 조성사업’을 영광 대마산업단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해 산단 구역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CT&T 전기자동차 협력업체 및 관련 부품업체 중 상당수 기업이 전남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 대마일반산 산업단지 and 영광군 일원을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기자동차 산업을 새로운 전남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영광군은 전기차 운행구역의 지정·고시를 완료했으며 22면 국도를 제외한 전 군내에서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차 3대를 CT&T로부터 관용차량으로 구매하는 등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도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영광군의 도전은 여전히 미완성이다. 국비 확보를 통해 기반시설비용을 최대한 줄여 분양가를 더 낮춰야하며, 저속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고보조를 받아내 업체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광 장점 활용 전기車 산단 추진
관광 등 연계 시너지 효과 낼 것”

정기호 영광군수

지난달 30일 영광군청에서 만난 정기호 군수는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대마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군수실에 걸려있는 군정방침의 첫 글귀는 ‘총력 투자유치’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마산업단지를 전기자동차 단지로 특화한 계기는?

▲영광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굴비 밖에 없었다. 그것만으로는 영광이 더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산업단지를 찍어내지 말고 원자력·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기반이 갖춰져 있으며 환경 여건이 뛰어나다는 영광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자고 생각했다.

- 저속 전기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이만희 환경부장관을 만나 약속을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저속 전기차에 대해서도 국가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이제 곧 업체들의 투자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본다. 현재 전체 부지의 30%가 가계약을 했으며, 연말까지 5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영광 대마산업단지가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일단 산업기반이 전혀 없는 지역 군 단위에서 최첨단 기술이 필요한 전기자동차 산업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그만큼 공직자, 군민이 혼연일체가 돼 이를 추진했다. 군민들에게 전기자동차와 투자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했다.

- 전기자동차가 영광의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전기자동차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전기자동차 실증단지, 더 나아가 전기자동차 산업특구까지 가야한다. 전기자동차와 관광 및 여업 등 기존 산업과 연계시키며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래야만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인구 5만의 군지위 민간산업단지 기공식에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처음엔 안 될 줄 알고 청와대에 부탁했다. 대체 안 된다는 답변이 왔다. 그래도 계속 요구했다. 대통령이 아니면 총리나 장관 정도는 보내주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줄기차게 요구하니 대통령이 “그렇게 불러주는데 한 번 가보자”고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참석했을 때 국비 좀 확과 밀어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영광군 대마면에 위치한 대마산업단지 전경. 영광군은 이 단지에 전기자동차 업체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으며, 추후 전기자동차 실증단지, 전기자동차 산업 특구 등으로 범위를 전체 군으로 확산시키거나 방침이다.

/영광=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8th Wine & Dine

2010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칠레 부띠끄 와이너리

페레즈 크루즈 와인 메이커스 디너

칠레페레즈 크루즈 와이너리인 German Lyon과 함께하는 와인 디너행사로, 30년을 지켜온 광주의 대표맛집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준비한 최고의 만찬과 6가지 와인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8회 와인 & 다인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0. 10. 6(수) 오후 7시30분 / 리셉션 6시50분부터

회비 / 100,000원

장소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062-525-2111

문의 / 권홍식 010-5746-0852, 062-525-2111

신청 / www.winepartner.co.kr / 전화신청

http://www.geumsoojang.com

http://www.winepartner.co.kr

Wine partner

와인파트너

1. Fairview Darling Chenin Blanc 2009

2. Vina Perez Cruz Cabernet Sauvignon Reserva 2008

3. Vina Perez Cruz Carmenere Limited Edition 2008

4. Vina Perez Cruz Syrah Limited Edition 2007

5. Vina Perez Cruz Liguai 2007

6. Vina Perez Cruz Quelen 2006

movieholic 영화에 빠지다

명쾌한 여인과 함께!!

상무점

항도시장 영화사할

콜롬버스시네마

아남점

1관 방가?방가! (12세)

2관 마루밀아리에티/퀴즈왕/그랑프리

3관 시라노-연예조작단(전체)/아저씨 (18세)

4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5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5세)

6관 슈퍼배드(전체)/레지던트이블4(18세)

7관 해결사 (15세)

8관 슈퍼배드/레지던트이블4/해결사

9관 무적자 (15세)

10관 해결사 (15세)

항도시장! 영화사할! 매일 심야상영 /호남최대주자장 /www.cinus.co.kr

3D디지털 상영!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MEGABOX

M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최고급관

2관 무적자(15세)

3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8세)

4관 해결사 (15세)

5관 레지던트이블4 (18세)

6관 방가?방가! (12세)

7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체)

8관 그랑프리 (12세)

9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18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자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나. 한번 알린다!

해결사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511-1000

CINUS

1관 시라노-연예조작단(12세)

2관 마루 밀 아리에티(전체)

3관 아저씨 (18세)

4관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18세)

5관 슈퍼배드(전체)/퀴즈왕(15세)

6관 무적자 (15세)

7관 레지던트이블4 (18세)

8관 방가?방가!(15세)

색깔있는 영화산책 *www.cinus.co.kr

씨너스전대3D(4K)상영!!